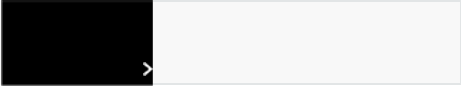


과기부, "통신 설비 피해 대부분 복구돼 99% 정상적 운영 중"

입력 2021.02.15 (21:53) | 수정 2021.02.15 (22:01)

뉴스 9



[앵커]

K리그 최강 전북은 흔히 '닥치고 공격'이라는 일명 닥공 공격 축구로 유명하죠.

그런데 사상 첫 5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올 시즌, 전북이 내세우는 진짜 무기는 수비라는데요.

김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.

[리포트]


시즌 개막을 앞두고 이운재 코치가 골키퍼의 수비를 집중 지도합니다.

주전 수문장 송범근이 가장 배우고 싶어한 건 페널티킥 방어.

[송범근 : "페널티킥 어떻게 하면 잘 막아요?"]

[이운재 : "골대까지 안 잡아도 돼, 그건 먹어도 돼. 그건 시원하게 먹어도 돼. 다만 내 무릎에서 2미터, 무릎에서 허리 사이, 여기. 그런데 다섯 개 중에 그제 2~3개가 와"]

제보

 재난포털

ON AIR

이 시각 헤드라인

대선 투표율 오후 5시 현재 73.6%… 19대보다 3.5%p ↑

이재명 후보 자택, 지금 상황은?

윤석열 후보 자택, 지금 상황은?

‘NLL 월선’ 북한 선원 7명, 북으로 송환…“항로 착오로 넘어와”



많이 본 뉴스

- 1 대선 투표율 오후 5시 현재 73.6%…19대보다 3.5%p ↑
- 2 이 “수천, 수백 표로 결과가 달라져” 윤 “투표율 기대에 못미쳐”
- 3 “경북·강원 산불 났는데”…‘제주돌불축제’ 어쩌나?
- 4 [특보] 이 시각 산불 상황과 바람 전망
- 5 ‘아이폰SE3’·‘아이폰13 그린’ 공개…시장 평가는?
- 6 ‘NLL 월선’ 북한 선원 7명, 북으로 송환…“항로 착오로 넘어와”

전북은 한일월드컵 전설 이운재 골키퍼 코치를 영입했고, 국가대표 중앙 수비수였던 김상식 감독이 첫 지휘봉을 잡아 탄탄한 수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.

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최소 실점으로, 이미 수비가 강한 전북의 수비력이 한층 더 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.

[송범근/전북 골키퍼 : "골을 먹지 않으면 골을 반드시 넣고 승리할 수 있다는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"]

김진수가 빠져나간 측면 공백은 이유현의 영입으로 메웁니다.

공격진의 파괴력도 여전합니다.

구스타보가 건재하고 지난 시즌 득점 2위 일류첸코를 영입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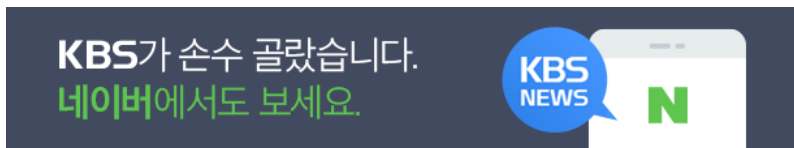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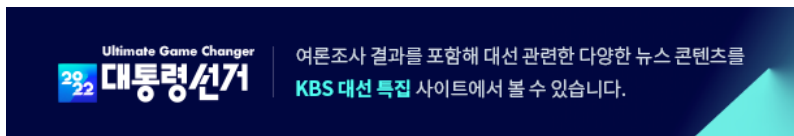
발빠른 김승대까지 복귀해 이른바 '화공 축구'를 내세웁니다.

[김상식 : "세 선수들이 한 40골 정도 합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기대하고 있습니다."]

전북은 독일에서 뛰는 국가대표 미드필더 백승호 영입전에도 뛰어들었습니다.

KBS 뉴스 김기범입니다.

촬영기자:오광택/영상편집:조완기



김기범 기자 kikiholic@kbs.co.kr

김기범 기자의 기사 모음 ▶

뉴스 9 전체보기



오늘의 HOT클릭!



절반만 찍히거나 겹쳐 찍었어도...선관위 “모두 유효표”



[20대 대선 인증샷] 내 손으로 뽑는 대통령 “투표했어요~”



신규 확진 34만여 명 역대 최대...누적 500만 명 넘어서



“경북·강원 산불 났는데...‘제주들불축제’ 어쩌나?”

‘아이폰SE3’·‘아이폰13 그린’ 공개...시장 평가는?

[영상] “특정 후보 연상시킨다?” 투표 도장까지 바꾼 사연

지역뉴스

- 부산

울산

창원

진주

대구

안동

포항

광주

목포
- 순천

전주

대전

청주

충주

춘천

강릉

원주

제주

뉴스 아카이브